



양의지 김현수 차우찬 민병현 황재균

# 김경문호 중심 '1987년생'

1982년생 이대호 · 김태균 · 정근우 · 오승환에서 세대교체

한국, 4년 전 초대회에서 우승...도쿄올림픽 본선 진출권 걸러

1987년생 선수들이 한국 야구 대표팀의 중심을 잡는다. 양의지(NC), 김현수, 차우찬(이상 LG), 민병현(롯데), 황재균(KT)이 김경문호를 이끌어 나갈 주축들이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은 오는 11월 개막하는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참가를 앞두고 소집 훈련을 시작했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일정을 끝마치지 않은 두산 베어스 SK 와이번스,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을 제외한 12명이 모여 훈련 중이다. 한국은 4년 전 프리미어12 초대 대회에서 우승했다. 준결승에서 일본을 만나 오타니 쇼헤이(LA 에인절스)에게 공포 무어 패배를 눈앞에 뒀으나 극적인 역전승으로 결승에 올라 미국을 꺾고 우승컵을 차지했다.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김경문호의 과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2020년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권이 걸려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 슈퍼라

운드에 진출해 호주와 대만보다 높은 순위에 올라야 도쿄올림픽 본선 티켓을 딸 수 있다. 예선 C조에 편성된 한국은 11월 6일 호주전을 시작으로 7일 캐나다전, 8일 쿠바전을 치른다. 4개 팀 중 상위 2개 팀이 슈퍼라운드에서 오른다. 대회 개막을 3주 가량 앞두고 있는 대표팀 선수들은 최근 KT 위즈의 홈 구장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훈련에 돌입했다. 이번 대표팀은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 최고령 선수가 1986년생 박병호(키움)로 한국 나이 34세다. 최연소 강백호(KT)는 21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김경문호의 연령대 분포라고 볼 수 있다. 그 중 1987년생 선수들이 대표팀의 핵심이다. 양의지, 김현수, 차우찬, 민병현, 황재균, 원종현(NC) 등 동갑내기 6명이 대표팀에 모였다. 원종현을 제외한 5명은 이전 대표팀에서도 한숨을 쉬며 친분을 쌓은 사이. 원종현도 차우찬과 군산상고 동기동창으로 인연이 깊다.

양의지(125억원), 김현수(115억원), 차우찬(95억원), 민병현(80억원), 황재균(88억원)은 FA 대박을 터뜨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5명의 FA 계약 총액을 합치면 503억원에 이른다. 그만큼 리그 정상급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라는 뜻이다. 이들 위로는 박병호와 최정(SK) 둘 뿐이다. 최정은 1987년생이지만 2월에 태어난 이른바 '빠른년생'으로 박병호 등 1986년생들과 동기다. 김현수는 주장을 맡았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이어 2회 연속 대표팀 주장이라는 중책을 부여받은 것. 선수들이 김현수를 주장으로 추대했다. 김현수는 소속팀 LG에서도 주장을 맡으며 리더십을 검증받은 선수다. 과거 대표팀의 주축이자 한국 야구의 황금세대로 불리는 1982년생들은 세대교체 속에 태극마크를 내려놨다. 이대호(롯데), 김태균, 정근우(이상 한화), 오승환(삼성) 등은 이번 대표팀에 한 명도 승선하지 못했다.

##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우여곡절' 벤틀호의 평양 2박3일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호텔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최영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축구보다는 '안 다쳐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였다. 상대에게 심한 욕설도 많이 들었다."(손흥민) 29년 만에 북한 평양에서 열린 남북 남자 축구대표팀간의 맞대결은 우여곡절로 점철됐다. 파울루 벤틀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지난 15일 오후 5시 30분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H조 3차전 북한전에서

평양에 있는 아시아축구연맹(AFC) 경기감독관이 AFC 본부가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상황을 전달하면 말레이시아에서 서울의 축구협회 직원에게 전하고 그것을 출입기자단에 다시 알려주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마저도 경기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었다. 경기 시작과 전반 종료, 경과 상황, 교체 투입 상황만이 전해졌다. 두 팀 중 어느 팀이 경기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누가 슈팅을 때렸는지도 알지 못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두 팀 통틀어 나온 경과 4장이었다.

손흥민 "축구보다 안 다쳐야겠다 생각 들 정도 북한 기철어 가져간 음식 압수...사상 초유 무관중 경기에 녹화중계도 무산

득점 없이 0-0으로 비겼다. 이번 남자축구 남북전은 개최 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지난 1990년 이후 29년 만에 평양 땅에서 열린 경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 전 생중계가 불허되는 등 예상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갔고, 사상 초유의 무관중 경기로 열렸다.

◇주어진 정보는 옐로카드 4장... "북한은 전쟁을 치렀다"

이번 경기는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대한축구협회는 평양 현지에서 파견된 직원이 서울에 있는 협회 직원에게 특정 상황을 알려 다시 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소식을 전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북한의 열악한 통신 사정으로 인해 변경됐다.

17일 오전 귀국한 선수단을 통해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손흥민은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수확일 정도로 북한이 거칠었다"며 "축구에서 몸싸움은 당연히 허용되지만 북한은 누가 봐도 거칠게 들어왔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전했다.

이어 "심한 욕설도 많이 받았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다. 축구보다는 '안 다쳐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핑계 아닌 핑계지만 부상 위험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평양 원정 단장 자격으로 선수단과 동행한 최영일 부회장은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다. 북한 선수들의 눈빛이 살아 있었다. 안 지러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며 "북한은 정신력을 강조한 축

구를 했다. 부상 없이 된 것으로 만족한다"고 전했다.

◇음식물 압수에 2박3일간 호텔에만... 물어봐도 답 없어

선수단은 경기 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14일 평양에 입성한 뒤 고기, 해산물 등이 들어 있는 메인 식재료 3박스를 압수 당해 호텔 식단으로 음식을 해결하는 등 100% 컨디션으로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또 선수들은 호텔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호텔 직원 역시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선수들도 예민한 문제다 보니 조심했다. 호텔에서 쉬면서 경기에 최고의 몸 상태를 맞추려고 했다. 경기에만 집중했다"고 전했다.

최 부회장은 "통신 자체가 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호텔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호텔에는 우리 선수들과 관계자만 있었다. 외부인의 출입도 금지됐다"며 "북한은 규정대로 한다고 했다. 무엇을 물어도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FIFA 규정을 살펴보고 제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북한전 녹화중계 역시 결국 취소됐다. KBS는 이날 오후 5시 계획했던 남북전 녹화중계를 편성표에서 뺐다.

북한은 한국 선수단이 평양을 떠나기 직전 중계 영상이 담긴 DVD를 건넸다. 하지만 축구협회 확인 결과 화질이 좋지 못해 방송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마지막까지 '깜깜이 경기'로 이번 북한전은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뉴스1



## 류현진, MLB 선수들이 뽑은 '최고의 투수' 후보 3인 선정

류현진(32·LA 다저스)이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최고 투수' 후보에 올랐다. 메이저리그 선수노조는 17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19 메이저리그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드 '최고의 투수' 후보를 발표했다.

내셔널리그에서는 류현진을 비롯해 제이콥 디그롬(뉴욕 메츠), 마이크 소로카(애들랜트 브레이브스) 등 3명이 후보 명단에 들었다. 선수노조는 "올해 류현진은 다저스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도왔으며 14승 5패, 메이저리그

평균자책점 1위(2.32)로 활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이닝당 볼넷은 1.2개로 역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낮다. 내셔널리그 올스타 선발 투수로도 뛰었다"며 활약상을 짚었다.

**명품하는 행복의조반**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